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2.28.(월)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 등을 통해 어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아침 북한이 순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정황을 포착한 이후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는 등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엄중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장차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어 남북관계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혔으며, 북한을 향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유관부서 그리고 유관국과 함께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긴장과 대립이 아닌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오늘 2022년 통일 문제의 이해, 북한 이해, 한반도 평화의 이해 등 3종의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합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1972년부터 통일과 북한을 주제로 발간되어 왔으며, 지난해부터 평화교재를 추가하여 3종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교재는 각기 2만 5,000부씩 발간되며, 일선 학교와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어 통일교육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일 3월 1일은 통일부가 창설된 지 5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통일부는 3월 2일 수요일 오후 창설 53주년 기념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통일부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걸어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내부 행사인 만큼 별도의 취재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1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보도매체를 통해 2월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했는데, 정부는 이를 모라토리엄 파기 수순이라고 평가하는지요?

<답변> 북한의 어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군당국을 중심으로 세부 제원 등에 대한 정밀분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에 유의하면서 제원 등에 대한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미사일 발사의 함의를 판단하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과 같은 시점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서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